



여행과 캠핑 And... 자아 찾기



진로체험이란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관해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가운데 여행은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캠핑가이드 신익섭 씨가 이야기해주는 '여행'의 의미와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여행이란 익숙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여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삶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꼭 멀리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어딘가에 갈 때 늘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다면, 다른 경로로 가보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행은 멀리 가는 것도, 유명한 곳을 가는 것도 아닌, 새로운 경험입니다. 집 근처 자주 가지 않던 장소를 둘러보는 것부터 새로운 지식, 새로운 영화, 새로운 책을 경험하는 것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다림' 을 통해 나사를 푸는 연습이 필요

놀고 즐기는 것도 어려서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생겨도 노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을 즐길 수 없습니다. 여행에서만큼은 일상에서 꼭 조여진 나사를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뻑뻑하게 여행 스케줄을 짜기보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루 종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대화도 나누고 책도 읽으며 나사를 풀어보세요. 아이가 여행을 와서 게임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합니다. 여행을 가서 많은 걸 하려고 애쓰기보다 나사를 풀고 부모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다리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마음을 열고 자녀를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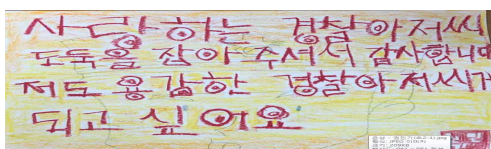
모든 아이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는 한 가지 기술을 깊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반면, 또 어떤 아이는 여러 가지 기술을 조금씩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타고난 능력을 잘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잘 관찰하고 마음을 열어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할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기준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부모님께서 먼저 기대나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아이들은 더 즐겁게 꿈을 잘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출처: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시즌 5, 4~5회)

사랑하는 경찰 아저씨께 ♥

나의 꿈



2019 교내 진로탐색 글·그림대회
초등 은상 초2-1 권민기 학생 작품 중에서

나에게 있어 놀이치료사란..

놀이 놀아주면서 치료해 주는
이 이로운 생활습관을 길러주는
치 치료실에서
료 요리사처럼 요리를 하면서
사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2019 교내 진로탐색 글·그림대회
고등 고2-1 황보영 학생 작품 중에서



편견을 접으면
그들의 능력이
보입니다.

동행으로 행복한삼



발행기관
전북푸른학교

차별의 발견



2002년 12월까지 **살색**,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연주황**,
그리고 현재 **살구색**,
두 번이나 색깔의 이름이 바뀐 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948년 탄생한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갖는 최소한의 권리들에 대한 선언으로 그 권리들의 대전제를 **차별금지**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에 따른 구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차별금지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는 “장애”라는 항목은 빠져있습니다. 2001년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는 없는 장애를 포함하여 18개의 차별금지 항목을 열거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18개의 항목들은 없었던 차별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차별의 항목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색깔 이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레파스 색깔 중에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살색은 ‘연주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8월 다시 ‘연주황’이란 색깔의 이름에 문제를 제기한 여섯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주황”은 한자표기여서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의 발견을 통해 살색은 연주황으로, 연주황은 현재 ‘살구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차별은 이제 모두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 EBS 지식 e채널 ‘차별의 발견’에서 발췌, 각색


장애인 차별 금지법


★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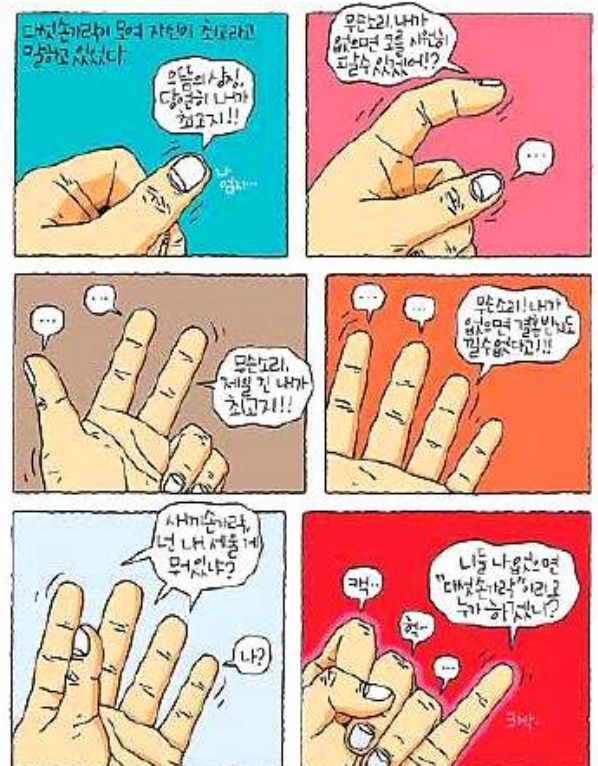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